



연극을 도입한 첫 시도인 '야단법석 시즌3'에 참석한 관객들은 높은 호응을 보였다.

결사추진본부 · 불시넷
7월 8일 '야단법석 시즌3' 개막
'희노애락 파도서 붓다의 바다로'
첫 테마 '우바이' 연극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7월 8일 '야단법석 시즌3'을 개막했다. 우바이를 테마로 열린 첫 번째 마당은 연극과 대중공사가 결합한 새로운 시도라는 평을 얻었다.

부처님은 고부갈등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의연하게 살아가기를 발원하지만 현실에서 부딪히는 경계로 늘 번뇌와 갈등을 일으킨다. 가족, 인간관계, 사회에서 뿐 아니라 심지어 수행활동을 하면서 도반들과 과도 갈등을 만든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무대로 끌어올려 불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불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힐링퍼포먼스 연극'이 마련됐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추진본부)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후)가 주관한 '야단법석 시즌3'이 바로 그것. 결사추진본부는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붓다로 살자-사부대중, 희노애락의 파도에서 붓다의 바다로'라는 대주제 아래 우바이를 테마로 연극을 펼쳐나갔다.

첫 공연인 '진정한 연민의 바다, 우바이!'는 한국 불교의 근간인 우바이들의 고민과 수행 사제들을 연극으로 제시하며 문제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마당이었다.

곳곳에 부적을 놓는 시어머니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난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위기에 놓인 부부가 있다. 외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온 시어머니는 아들의 장가 후, 아들 내외와 함께 불편한 동거를 10년째 지속해오고 있다. 아들을 위해 손수 숙옷을 빨아 개놓는다면, 아이가 없는 며느리를 위해 부적을 곳곳에 넣어둔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간섭과 고지식한 행동이 거슬리기만 할 뿐이고, 서로 아들의 빨래를 잡아당기며 욕심박신하다 시어머니가 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스님의 권유에 따라 공개적인 토론의 장 '야단법석'의 무대에 섰고, 무대에 마련된 가림막 뒤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시어머니는 제 남편 숙옷을 직접 빨래해서 옷장에 넣어주세요. 제 장롱을 뒤적이는 것은 부지기수구요. 또 집안 곳곳에 부적을 놔주세요. 도대체 개인 공간이라고 할 곳은 어디에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며느리)

"왜 부적을 미신이라고만 여기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절에서 108배, 3000배를 하고 정성들

고부갈등 '힐링퍼포먼스 연극' 형식 생활불교 주제... 객석 '적극적' 참여 "사찰에 고민 상담실 있었으면"

여 기도를 올리고 받은 부적인데 그게 정성이 아니면 무엇이지?"(시어머니)

가림막 앞에는 두 사람을 대변하면서 관객들의 발언을 유도할 두 남성 패널이 앉았고 사회자가 패널과 관객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무대를 전개해 나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솔회 후, 사회자가 관객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며 첫 질문을 던졌다.

"○○동에서 온 불자인데요, 저는 며느리가 좀 한 발짝 물러나 양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생략)" 한 여성이 반쯤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객석에도 관객 역할을 맡은 배우를 배치해 관객



신호승 사회자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관객들은 연극을 보며 자신의 문제인 듯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 도법 스님

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시도다. 그 덕분인지 관객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랑 얼마나 오래 산다고, 며느리가 좀 참으면 안 되나요?" "저 며느리는 10년을 저렇게 살았지만, 저는 30년을 시어머니와 살았습니다. 남편을 아예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이제 저는 자유부인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연극과 관객들의 발언에 공감을 느낀 참석자들이 너도나도 손을 들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현실 문제를 불교가 어떻게 풀어안아야 하나

이번 '야단법석 시즌3'은 고부갈등과 같은 현실의 문제를 불교가 어떻게 풀어안고 해결해나가야 하나 하는 의문에서 시작했다. 그런 만큼,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관객들은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활동과 개인의 문제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 불교와 사찰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봉은사 신도라 밝힌 한 관객은 "많은 우바이들이 수행생활을 하지만 이런 가정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지 않을 뿐 더러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종단에서 정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관객은 "사찰에 가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스님이나 전문 상담사에게 삶의 고민을 털어놓고 불교적 해법을 전해 들었다면 고부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야단법석 3시즌이 지난 1·2시즌에 비해 대중적인 주제로써 흥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금은 더 불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진행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은 "야단법석에

서 '우바이'를 테마로 연극을 한 것은 반갑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부갈등을 주제로 연극을 진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며 "교단과 수행 현장에서 겪는 우바이의 갈등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 실제 수행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풀어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외로움, 슬픔, 증오, 탐욕 등 온갖 갈등과 번뇌가 삶의 현장에 등장한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는지, 붓다로 산다면 이런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임하고 다뤄야 하는 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결국 이러한 삶의 고민을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고 잘 소화시켜내는 것이 붓다로 사는 것이다. 객석과 무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연극을 통해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법 스님은 "첫 시도인 만큼 끊임없이 가꾸고 다듬어 탄탄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 마당의 주인은 불자 여러분이므로 주제로써 함께 발심하고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극의 전체 연출은 남우성 양지창작문화연구원에서 맡았으며, 신호승, 김성미, 황세원, 김상일, 손경원, 최영환 등의 배우가 출연했다.

우바새 · 비구니 · 비구 · 미래세대도 준비

남우성 대표는 "이번 야단법석은 지난 번의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로 담론형식의 자리를 탈피하기 위해 조금은 쉽고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좀 더 세련되고 치밀하게 공연을 준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사추진본부는 "대승불교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당인 '야단법석 시즌3'은 불교 공동체를 이루는 사부대중과 미래세대를 테마로 각 주제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으로 기회하고 연극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단법석 시즌 3의 두 번째 테마는 남성불자인 우바새를, 세 번째는 비구니, 네 번째는 비구 스님, 마지막은 미래세대를 테마로 진행한다. (02)2011-1925

글=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신제품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승(念誦) 모음

■ 염승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계,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백대참회문, 대불정능염심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필양심주경, 보광삼매론

■ 염승의법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엡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출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